



농림부 승진인사



◀ 장기윤 서기관

농림부는 지난 22일부로 장기윤 사무관(가축방역과)을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장기윤 서기관은 다년간 축산물 수입 추출검역 관련업무를 맡아오면서 국내 검역 전문가로 국내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 활동에 힘써왔다.

한국축산환경기계협회 장동일 신임회장 취임

한국축산환경기계협회는 지난 4월 12일 총



◀ 장동일 회장

회에서 장동일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하였다. 장동일 회장은 현재 충남대학교 생물자원 공학부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농공학 농학사, 동 대학원 농업기계학 농학석사, 미국 캔사스주 대학 농업기계학 석·박사 등을 거치며 축산기계분야 활성화에 대·외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협회가 회원사들이 회사발전에 꼭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기술 및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협회운영에 회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힘을 기울일 것을 계획하였다.

(사) 한국오리협회 인사변동 안내



◀ 김용진 전무

한국오리협회는 전 축협중앙회 김용진(金龍進)씨를 신임전무로 영입하였다.

김용진 신임전무는 전남대 농업경제학과를



▲ 이강현 부장



▲ 양동연 씨

졸업하고 건국대 축산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신인 국립농업경제연구소를 거쳐 축협중앙회에서 근무하였다.

축협중앙회에서는 조사부장, 연수원장, 직거래판매분시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서는 가축개량사업소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한국자조금연구원 전무 겸 상임연구원을 맡아왔다. 또한 부장에 이강현씨, 사원 양동연씨를 새로 채용했다.

이강현 부장(58년)은 구 축협중앙회에 21년간 재직한 바 있으며 본 회의 내부실람을 맡을 예정이다. 양동연 사원(82년)은 올해 경원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앞으로 회계 및 월간지 발행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국산 가금 · 가금육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 해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영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N1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06.04.11일자로 조치하였던 영국산 가금 · 가금육 등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건이 06.05.12일자로 해제되었음

을 알려왔다. 이로써 EU지역에서는 덴마크(06.04.26)이후 두 번째로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해제국이 되었으며, 국내 산란중계수입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산 가금 · 가금육 등 수입금지 조치 알림

덴마크내 닭, 오리 등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덴마크산 가금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했다. '06.05.19일자로 가금류(조류포함) 수입이 금지되며, 가금육(부산물 포함)은 '06.04.22일 이후 도축 · 생산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다. 수입금지조치 기준일 전에 도축 · 생산된 지정검역물은 정상적인 검역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수입금지대상 품목과 함께 선적된 동일 컨테이너 내 물품은 전량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 삼계탕 · 오리고기 수출 '호조'

올들어 삼계탕과 오리고기 수출물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4월까지 화인코리아, 하림, 마니커의 삼계탕 수출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30.3% 늘어난 271톤을 기록했다. 특히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매일 삼계탕 수출물량은 186톤으로 전년동기보다 10.7% 증가했다. 대만으로도 두배이상 늘어난 56톤이 수출됐고 홍콩으로는 24톤, 필리핀 1톤, 기타국으로 4톤이 수출됐다.

그동안 물량이 크게 늘지 않았던 삼계탕은

최근들어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과 더불어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다.

업계전문가들도 최근 대만, 홍콩에서 삼계탕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닭고기를 선호하는 현지인 입맛에 삼계탕이 잘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가금학회 춘계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강창원)는 지난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2006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상진 서기관(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이 '국내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향'을, 김종택 상무(전후제일사료)가 '양계농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적용'을, 고영곤 이사(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이 '양계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적용'을, 오기석 본부장(마니케)이 '양계산물 유통과정의 위해분석 및 식품 안정성 확보'를, 권용국 연구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안전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가금질병 제어 대책'을 1·2부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4분기 농장방역실태점검 및 시료채취 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의 1/4분기 농장방역실태점검 및 시료채취 결과 방역요원의 지속적인 전문기술 습득과 대농가서비스 제공으로 가축질병의 조기 신고체제가 구축되고, 질병예방차원의 시료채취사업이 양축농가와외의 공감대 형성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농장방역실태점검 실적은 연간계획대비 28%인 4만3천2백68건이며, 그중 닭은 28%로 당초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1분기 중에 예찰결과 특이사항 및 악성전염병 발견·확산방지에 기여한 사례들 중 가금은 17건으로 야생오리, 까치, 기러기 등의 폐사에 대한 검사의뢰가 경기, 충남, 전북지역에서 있었으며, 모두 조류인플루엔자 음성판정이 내려졌다. 산란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계, 위축폐사, 호흡기 질병, 산란율 감소 등의 원인으로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계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마이코플라스마, 대장균 감염증, 난황염 등의 결과가 나왔다.

'06년 1/4분기 시료채취 농가수는 연간계획 대비 28% 달성한 2만5천9백56호이며, 시료채취 두수는 23%인 15만9천7백72두이다. 닭뉴캐슬병에 대한 산란계 항체검사는 연간계획 대비 24%인 454호(20,932수)에서 시료채취하였으며, 검사결과 450호(20,908수)가 항체 양성으로 판정되어 항체양성률 99.9%를 보였다.('05년 산란계 항체양성률 98.8%) 전남 닭

뉴캐슬병 발생주의보와 관련 육·삼계농가 42호(1,176수)를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42호(780수)가 항체 양성으로 판정됐다('05년 전국 평균 항체양성률 : 육계 75%, 산란계 99%).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물등급판정 통계' 통계청 승인으로 공신력 확보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06.4.3일에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작성승인(06.4.24)이 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 업무수행을 통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활용 등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하므로써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받게 된 것이다.

등급판정 결과를 집계·분석한 축산물등급판정 통계는 그동안 축적된 D/B를 활용한 축산물 생산·유통·소비의 대표적인 지표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경매시황 및 분석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이메일링과 모바일을 통한 등급결과 안내 등 등급정보 제공서비스도 높게 평가되었다. 이신호 차장은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것은 정부산하기관의 검사검증 12개 기관 중 최초로 승인 받은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6년 양계분야 협의회 1차 모임 가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계산업의 질병, 위생 및 사양관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수요자 측면에서 적극 발굴하고자 4월 19일 양계분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위원은 대학, 동물병원, 생산단체, 양계협회 등에 종사하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번 모임에서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 국내 백신접종에 따른 사후관리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있었다. 다음부터는 협의회 주제를 사전에 정한 다음 협의회 개최 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더욱 밀도 있고 효과적이면서 생산적인 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동향 검토회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3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 실무자 및 검역원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동향 검토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하였다.

해외전염병과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의는 이주호 질병방역부장이 좌장을 맡아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조류인플루엔자, 웨스트나일열 등에



대한 해외 발생 추이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양계와 관련해서 조류인플루엔자는 권용국 연구관이 맡아 발표를 했는데 HPAI가 현재까지 아시아 21개국, 유럽 26개국, 아프리카 6개국으로 전체 53개국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에서는 김동진 홍보팀장이 참석해 HPAI 예방을 위한 국경검역의 중요성과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다.

동물약품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KVGMP 업체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수의학 박사 강문일)은 충남 예산지역의 동물약품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애로사항 및 동약업계 발전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개선·보완코저 “품질관리 우수업체(KVGMP)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는 2006. 5. 17일 충남 예산지역 산업단지에 소재한 (주)고려비엔피에서 개최되었으며, 동물약품 산업단지내 생산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수준 향상에 필요한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동 간담회를 통하여 검역원과 업계는 서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국내 축산업 및 동물약품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민원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의전자현미경 도감 발간

국가 가축질병 표준진단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국내 최초로 수의전자현미경 도감을 발간하였다. 이 도감은 가축질병진단 부서인 병리과(과장



이오수) 주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수의과학연구개발사업과 각종 동물 질병진단을 수행하면서 얻은 각종 재료를 검역원이 보유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체계적으로 분류·제작하였다.

이 책자에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제역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 38종, 인수공통전염병인 부루세라균 등 세균 17종, 개와 고양이에게 주로 기생하는 개 회충 등 기생충

9종 등 총 64종 병원체를 투과전자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형태학적인 모습과 질병의 간략한 정의를 함께 해설되어있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오리데이 행사 개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건물 앞에서 5월 2일을 맞이하여 오리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정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농협 지역본부 주관 하에 펼쳐졌다. 농협중앙회와 한국오리협회가 주관하고 농림부가 후원한 이번 오리데이는 행사에서는 ▷오리고기 요리 전시 및 시식회 ▷슛 골인! 대표선수에게 우편엽서 보내기 ▷월드컵 4강 기원 꼭지점 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축산회관 입주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지재학)는 지난 1일 서초3동 소재 제1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장·업체장 등 관련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입주식을 가졌다.

이날 지재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

년 동안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축산연구소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이번에 축산회관에 재입주함을 계기로 앞으로 축산 관련단체와 더욱 협조체제를 구축해 협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한국축산업이 보다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쌍둥이협회 삼쌍둥이 자선바자회

2004년 축산회관에서 닭요리로 첫 돌잔치를 열어 양계산물 홍보에 큰 힘이 되어준 삼쌍둥이자매인 ‘사랑이와 지혜’가 어느덧 3살을 맞이하여, 본회는 지난 13일 신촌소재 비어팩토리에서 삼쌍둥이를 위한 자선파티에 참석하고 양계산물 홍보에 힘써준 사랑이와 지혜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봉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연예인 자선경매, 구두뒹기, 마술쇼, 풍선아트, 즉선사진 경품추첨, 밴드공연, 삼쌍둥이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으며 이날 모금된 수익금은 전세계 삼쌍둥이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삼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의 수정란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채 성장하여 출산하며 생존율이 극히 낮고 평균연령이 13세 정도이다. 전액 무상의료를 지원하는 몇몇의 국가를 제외하고 분리수술 및 재활비용을 삼쌍둥이 부모가 책임져야 하며 거액의 의료비와 삼쌍둥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 모두의 손길이 수년간 필요함으로 경제적 활동의 제약으로 정부지원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삼쌍둥이협회는 조만간 북한에서 자선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